



군산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펼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9일, 군산역전종합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구입한 물품은 신광모자원에 전달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복지시설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장보기에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을 비롯하여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어깨띠를 두르고 추석명절 장보기에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하며 시장 곳곳을 돌아다녔다.

의원들은 식재료와 생필품 등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지역 상권에 활기를 더했다.

또한,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 전통시장의 여건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상인들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김우민 의장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 죽향동, 취약계층 어르신에 누룽지 나눔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정숙)는 평소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용이 가능한 누룽지를 지원한다. 이 지원은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1일 가구 소동행정을 통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인부를 확인하고 생활을 살피는 돌봄까지 병행한다.

한 어르신은 “고령 및 질병으로 끼니를 챙기기가 힘들었는데, 누룽지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든든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나누리봉사단, 복지시설에 생필품 지원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 나누리봉사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사회복지시설 포도원과 이웃사랑 노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생필품을 지원했다.

봉사단은 남원의료원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2012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집수리 △의료봉사 △나눔봉사 △지역사회 의료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추석에도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 2개소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오진규 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생활시설 어르신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다문화와 지역이 함께한 어울림 장터'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7일 김제시여성가족친화거리에서 열린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장터'를 개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가족센터(센터장 장덕상) 주관으로 열렸으며, 베트남·중국·필리핀·캄보디아·태국·일본 등 6개국의 전통 음식과 수공예품 판매, 지역 농산물 장터 마술·풍선아트 공연, 아동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됐다.

특히 다문화가족이 직접 준비한 전통 음식과 수공예품은 시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지역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다 더욱 즐겁고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

어울림 장터 수익금은 예년과 같이 지역 청소년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이 장학사업은 2015년부터 10년째 이어져 오며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주민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화합의 장”

전주시 우아1동 동민의 날 행사 성료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 동민의날 추진위원회(위원장 신동선)와 자생단체협의회는 지난 27일 첫마중길 광장에서 1,000여 명의 동민들과 함께 '제15회 우아1동 동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시의장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병하 전주시의원 윤혜정 시의원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15번째를 맞은 우아동 동민의 날을 축하했다.

이는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열심히 봉사해 온 14명의 모범 동민들에게 시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아동 동민의날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자생단체연합회와 우아생활문화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풍물 공연 퓨전국악 문화공연 주민 노래자랑, 어르신 한궁대회, 어린이 놀이시설과 공예품 만들기 체험 부스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숨겨온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무대도 마련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 우아동과 자매결연을 하여온 진안군 용담면에서는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져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특히 제15회 동민의 날을 맞아 표창한 '효도상'은 가슴 벅찬 가족사랑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대자연병원에서 가족 건강검진을 후원하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신동선 제15회 우아동 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년 만에 개최하는 우아동 동민의 날이 주민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 매우 기쁘고 이번 행사를 위해 협력해 주신 자생단체와 우아생활문화센터 우아동 동민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축제에 참여한 한 주민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낌없이 제공되는 경품과 다양한 퍼포먼스 흥이 넘치는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남원시,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군부대 위문 활동 펼쳐

남원시는 추석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 가정,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은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에 격려와 감사의 뜻으로 마련됐다.

최경식 시장은 “추석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인 만큼,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위문 활동을 계획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더욱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최 시장은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등에서 더욱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천년고찰 순창 강천사,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통일신라 말 도선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순창의 천년고찰 강천사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최근 강천사 지일 스님은 순창군청을 찾아 저소득 아동과 문화소의 계층을 위해 쌀다림 성금 1천만원을 최영일 군수에게 전달했다.

강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의 말사로, 조선불교 초대 7인 종정 중 한 분인 석전 박한영 대종사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연대임을 비롯해 구암사, 만일사 주지를 겸임한 유서 깊은 전통사찰이다.

또한, 1482년(조선 성종 13년)에는 정부인 설씨가 지은 권선문(국가지정 보물 제728호)을 통한 백성들의 시주로 중건되기도 했다.

현재 대웅전 앞마당에는 강천사 오층석탑(도지정 유형문화유산 제92호)과 석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수령 300년이 넘는 강천사 모래나무(도지정 자연유산 제6호)와 삼인대



이리여고 벽화그리기, 학생·학부모 함께 진행

이리여자고등학교(교장 방극남)가 지난 27일 학생·학부모와 함께 벽화그리기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자율형 공립고 2.0 대상으로 선정, 그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벽화그리기에는 70여 명이 참여했다. 오전에는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해 밑그림을 그렸고, 오후에는 전문가들이 벽화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함께 참여한 이리여고 졸업생이 교가를 멋진 캘리그라피 솜씨로 표현해 모교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내 눈길을 끌었다.

벽화그리기 사업을 맡아 주관한 익산 시민단체 '희망연대'는 지역 곳곳에 아름다운 벽화그리기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시민의 자발적인 힘으로 꿈을 실천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도지정 유형문화유산 제27호)가 강천사 인근에 위치해 문화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지일 스님은 “올해 초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읍발전협의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은 무주읍발전협의회가 29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성용 회장은 “오늘 장학금은 무주읍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제29회 무주년빛불축제' 천원 국수 부스'에서 직접 일하며 얻은 수익금 중 일부로,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쓰자는 마음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무주군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발전과 이웃 행복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읍발전협의회는 18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비롯해 읍민의 날 행사 주관 및 반딧불축제 지원 등 주민 화합과 무주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서전주로타리, 소외계층 물품나눔봉사

국제로타리 서전주클럽(회장 조은광)은 추석을 맞아 전북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부설 장애인 이·미용 봉사단체에게 지구보조금과 120만원 상당의 사랑의 컴퓨터를 전달했다.

또한 서전주로타리클럽은 성요셉로원에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 봉사를 실천했다. /김재훈기자



남원농협·농기센터, 해당쌀 식미 평가회 개최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과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질소소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 시범사업 을 통해 생산한 해당쌀 식미평가회를 개최했다.

남원시는 남원농협과 함께 올해 남원 생산 쌀의 품질을 더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질소소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해 질소소비량을 관행(11kg/10a)보다 7kg 또는 9kg/10a로 감소소비해 해당쌀을 생산하였으며, 이번 평가회를 통해 질소 비료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남원농협은 적정 시비 기술 확산 및 신규 브랜드 쌀 홍보를 위해 햅쌀답야 10kg씩을 전 조합원에게 지급하며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햅쌀의 깊은 풍미와 독특한 밥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춘향라이온스클럽, 추어탕 밀키트 기부

남원시 향교동 관계자는 지난 26일 명절을 맞아 남원 춘향라이온스 클럽에서 추어탕 밀키트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영양가 높은 전통 보양사인 추어탕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 형태로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춘향라이온스 클럽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청소 및 반찬배달 등 다양한 봉사에 적극 참여중 이다.

이주연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현목 동장은 “독거노인분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아영면,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비스

남원시 아영면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은행이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일 1가구 소동행정과 연계하여 직접 신청인의 자택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까지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이며, 한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고 있는데 면에서 직접 찾아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063-620-4000)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